

전남,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 구축한다

26일까지 참여 기업 모집...맞춤형 대응기술 보급 기술·시설·인증 등 15억원 투입 10개 기업 지원

전남도가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 구축에 나선다. 전남도는 15일 “중소형 조선소 및 조선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조선업은 사망사고 발생률이 제조업 평균의 3배에 달하는 대표적 고위험업종이다. 이렇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보건·안전·환경(HSE)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현장 진단을 통해 조선업 생산 현장 맞춤형 보건·안전·환경(Health·Safety·Environment) 대응 기술을 보급 확대하는 사업이다. 조선업 밀집 지역인 전남·경남·부산·울산 4개 시·도가 공동 유치했으며 총사업비는 60억원 규모다. 전남에는 15억원(국비 10억원·도비 5억원)을 투입, 총 10개 기업에 대해 기술·시설·인증 등을 지원한다.

보건·안전·환경 기술 지원의 경우 고압 안전장치 기술, 사물인터넷(IoT) 및

센서 등 스마트안전시스템을 구축한다. 8개 회사를 선발해 최대 1억2천만 원을 지원하며 기업 부담금은 20%(현금 10%·현물 10%) 수준이다.

보건·안전·환경 시설 지원은 화재 안전시설, 작업장 조명 등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한 시설을 구축하며 2개 기업을 지원한다. 기업 당 최대 2천500만 원을 지원하며, 기업 부담금은 20%(현금 10%·현물 10%)다. 보건·안전·환경 인증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비용 부담 없이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공인기관 인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전남에 있는 중소기업, 대형 조선사의 사외협력사, 조선기자재 기업이다. 50인 이하 규모의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

에 따라 우대 가산점을 적용받는다. 국내 조선업 매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참여 기업 소유(임차 포함)의 생산 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국제 및 지방세 체납 처분을 받았거나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류·대면 평가를 거쳐 5월 말 지원 기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rimsre.kr) 사업공고메뉴를 참고하면 된다.

김미순 전남도 기반산업과장은 “대형 조선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과 인력 대응에 어려움이 많다”며 “조선업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청년층 유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시, 시내버스 운영 비용 산정 부실

시장사위, 특정감사 결과 발표...부적정 16건 적발

광주시가 시내버스에 매년 1천억원 대의 세금을 지원하면서도 비용 산정 등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15일 2020-2022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통해 16개 부적정 사안을 적발하고 팀장급 공직자 5명에 대한 훈계 처분을 광주시에 요구했다.

또한 성과 이윤 배분을 위한 경영평가 3년 간 실시하지 않은 데 따른 미 지급 성과 이윤 51억3천731만 원을 지급하고 정산 과정에서 누락된 기타 수입금 등 39억9천300만 원을 회수하도록 요구했다.

특정감사 결과, 광주시는 표준원가 산정 용역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 회의 산입검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버스정책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다.

표준원가 산정 시 정비·관리직 인건비 등은 용역 결과 대비 높게, 임원 인건비 등은 낮게 산정해 3년간 용역 대비 55억원의 차액이 발생하기도 했다.

광주에서는 10개 업체가 시내버스 999대(101개 노선)를 운행 중이다.

광주시는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2019년 733억원, 2020년 1천189억원, 2021년 1천221억원, 2022년 1천388억원, 2023년 1천424억원(확정 전)을 투입해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박선강 기자

市,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광주시는 15일 신안군 씨원리조트에서 자치구, 유관기관 등 풍수해 재난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자연재난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을 개최했다.

자연재난 대처 방안과 현장 사례 공유 등을 통해 협업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담당자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활용,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정책 변화, 홍수에-정보체계를 주제로 특강이 이어졌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1-12일 5개 자치구와 함께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자연재난 대처 능력 향상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 등을 종합 점검했다. 지난해 여름 폭우에도 인명 피해 ‘제로’를 달성했던 대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여름도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의정 갈등 출구는...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전공의 대표들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광고물 금지구역 ‘클린존’ 확대

전남도, 23곳→73곳 지정...보행 안전 기대

전남도는 15일 “불법 광고물 난립 방지와 도민의 교통·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광고물 금지구역 클린존 73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매년 불법 광고물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 미관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등 도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해 11월까지 3개월간 클린존 23개소를 지정해 시범 추진, 불법 광고물 총 5만6천154건을 정비

했다. 특히 클린존 내 정당 현수막이 11% 가량 감소함에 따라 불법 광고물 관련 민원도 눈에 띄게 줄었다.

전남도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클린존 50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주요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민 안전구역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이 상습 게시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시·군별 3개소 이상을 클린존으로 선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클린존 지정 현황은 전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시원 기자

광주시, CCTV 가상현실 체험관 새단장

오늘부터 비상벨 체험·물놀이 안전 영상 등 운영

광주시는 15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가상현실(VR) 영상체험관’을 새 단장에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폐쇄회로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에 마련된 영상체험관은 기존 2층에서 1층으로 확장 이전했으며 회선 사업자로 선정된 엘지유플러스(LGU+)의 투자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영상체험관은 8세 이상 초등학생, 학부모, 기관·

단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종류와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상현실(VR) 교육 과정은 VR 기기를 쓰고 가상현실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눌러 관제센터와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가상현실을 통해 비상벨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시민이 긴급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무인정보단말기(Kiosk)를 운영한다. 무인정보단말기에는 물놀이 안전 및 지진 대피 수칙 등 영상을 볼 수 있다.

광주시는 폐쇄회로텔레비전 가상현실(VR) 영상체험관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재난이나 범죄로부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험은 평일 오전 10시, 오후 2-4시 등 3회(회당 30분 안팎) 진행된다.

체험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 누리집(소통·참여·바로예약)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폐쇄회로텔레비전센터(02-613-644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폐쇄회로텔레비전센터 영상체험관은 2013년 10월 문을 연 뒤 1만2천200명이 이용했으나, 코로나로 축소 운영하다 중단됐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가상현실 영상체험관은 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을 이해하고 재난·범죄 발생 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전남산 조생 양파 수도권 판촉 행사

道, 출하시기 맞춰 고흥 거금도 양파 할인...7t 판매

전남도는 15일 “고흥 거금도를 시작으로 조생 양파 출하가 시작됨에 따라 전남농협, 거금도 농협과 함께 14일까지 수도권 판촉행사를 진행, 7t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양파 재배 면적 6천79ha 중 조생종은 1천239ha로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조생 양파는 3월 하순경부터 제주도에서 출하가 시작돼 전남산은 4-5월 가장 많이 출하된다. 올해는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이 부진해 출하 시기가 늦어졌다.

이에 전남도는 조생 양파 출하 시기에 맞춰 양파 소비 촉진을 위해 전남농협, 거금도 농협과 함께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고흥 거금도 조생 양파를 25% 할인된 가격으로 특권을 추진,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에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조생 양파를 구매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며 “양파 수급 안정을 위해 선제적 소비 촉진 대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보급을 통해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렸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빌려준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트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1) 50%급매 임동 더현대쇼핑몰인근대로변 대지318㎡
5층528㎡ 승강기1 주차6대 급매7억1,800

2) 화순 도곡 원화리 6차선도로변메인
계획관리 5,500㎡ 분할가능(시세50% 급처분)

3) 전일빌딩인접 중심상업지 코너 빌딩
대지804㎡ 7층5,300㎡ 승강기1 주차40
유동인구엄청 급처분68억(용자45억포함)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개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